

# 6 개교 75주년 기획-경희의 터전 2024

- \*연재순서
- ① 시리즈를 시작하며
  - ② 광릉캠퍼스: 빛의 언덕(光陵)에 세운 뜻 40년 (홍기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 ③ 국제캠퍼스
  - ④ 서울캠퍼스
  - ⑤ 부산 동광동·동대신동 캠퍼스

## <경희의 터전 2024> 시리즈를 시작하며

2024년, 경희대학교는 개교 75주년을 맞았다. 동시에 서울캠퍼스 시대 개막 70주년, 국제캠퍼스 설립 45주년, 광릉캠퍼스 개원 40주년을 맞는 해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피란지 부산에서 1949년 설립된 미인가 신흥초급대학을 인수하면서 경희의 역사는 시작됐다.

부산 동광동, 동대신동 캠퍼스를 시작으로, 1954년에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천장산(이후 '고황산'으로 개명) 일대에 새로운 캠퍼스를 건립하며 서울캠퍼스 시대를 열었다. 그로부터 25년 후인 1979년 1월 경기도 용인시에 제2캠퍼스 설립 인가를 받은 경희는, 1984년 9월 '광릉수목원'으로 친숙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광릉캠퍼스 평화복지대학원을 개원해 총 3개 캠퍼스 체제를 갖춘 대학으로 성장했다. 1964년 봄, <대학주보>에는 '慶熙(경희)의 터전'이라는 제목의 기사 시리즈가 연재됐다.(대학주보 온라인에서 확인) 당시로선 우리의 유일한 캠퍼스였던 회기동 서울캠퍼스가 위치한 고황산의 위치, 역사, 유래, 주변 사적을 중심으로, 고황산 일대가 갖는 지리적, 지정학적, 역사·문화사적 의미를 총 8회에 걸쳐 훑어보는 기사였다. 마지막으로 '大慶熙'로 雄飛, 1만여 경희인을 한 품에'라는 제목과 함께 1964년 당시의 캠퍼스 현황을 소개하면서 시리즈는 마무리된다. 당시 설립자 조영식 박사는 직접 붓을 들어 완성한 '慶熙의 터전' 휘호를 대학주보사에 증명했고, 이는 기사의 공식 제호(사진 참조)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로부터 60년, 경희의 터전은 많은 발전과 변화를 거듭했다. 개교 75주년을 맞아 대학주보는 경희기록관과 함께 기획 시리즈 '경희의 터전 2024'를 새롭게 시작한다. 총 4회에 걸쳐 연재될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서울, 국제, 광릉 3개 캠퍼스는 물론 경희가 태동한 부산 동광동·동대신동 캠퍼스 설립의 역사를 돌아본다.

일반적으로 대학 캠퍼스 건립은 확보된 토지 위에 필요한 건물을 우선 짓고, 주변 부지를 점차 확보해 가면서 건물을 하나하나 확장해 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달리 경희 캠퍼스는 '기회 캠퍼스'라는 독특함을 갖고 있다. 그것이 낳은 차이는 무엇일까?

'한국 최초 '국내 최대'라는 수식어가 낯설지 않은 유서 깊은 건축물, 캠퍼스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조형물. 그들은 왜, 어떻게, 거기에 서 있게 되었을까? 캠퍼스의 역사와 함께 그 안에 숨겨진 다양한 수수께끼의 답을 찾는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개교 이래 줄곧 경희가 꿈꿔 온 '문화세계의 창조', 즉 '인간의 인간적인 세계, 지구상 모든 존재의 공존과 공영의 평화 세계'를 이룩해 가는 터전, 학문과 평화의 전당 경희 캠퍼스의 숨겨진 참모습과 어느새 조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경희의 터전 기사가 처음 실린 대학주보 215호(1964.3.18.)



광릉캠퍼스 전경



1985년 평화복지대학원 공사현장에서

# [경희의 터전 2024-광릉캠퍼스] 빛의 언덕(光陵)에 세운 뜻 40년



홍기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평화복지대학원'(The Graduate Institute of Peace Studies)은 서울로부터 동북방으로 25km 떨어진 경기도 남양주시 광릉읍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제3캠퍼스다.

광릉은 조선왕조 제7대 세조대왕과 정희왕후의 왕릉이다. 평화복지대학원 설립은 광릉의 내세를 기원하는 사찰 봉선사(奉先寺)와 깊은 관계가 있다.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봉선사의 주지였던 운허(耘虛) 스님(1892~1980)은 1946년 봉선사 바로 옆에 광동(光東) 중학교를 설립했다. 하지만 1978년에 이르러 학교가 지역적으로 편중돼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인근인 진접읍 장현리로 이전했다. 그리고 경희대는 1979년 11월, 이 땅을 경희학원 연수원 부지 활용 목적으로 매입했다.

이 부지에 평화복지대학원을 설립한 것은 1980년대 초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1980년대에 접어들며 미국·소련 간 거열된 핵 군비 경쟁으로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당시 총장이었던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는 1981년 세계대학총장회의(IAUP) 제6차 총회가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리자 '긴급한 요청: 평화는 개신보다 귀하다'(The Great Imperative: Peace is more Precious than Triumph)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했다. 또한 유엔에 세계평화의 날과 평화의 해를 제정해 공포하

자고 제안했다. 이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그리고 유엔 코스타리카 대사를 통해 유엔총회 의안으로 제출됐다. 이리하여 1981년 11월 30일, 유엔총회에서 세계평화의 날과 평화의 해 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유엔총회는 총회가 시작하는 9월 세 번째 화요일을 유엔이 제정한 '세계평화의 날'로 선포했다. 그리고 1982년 11월 16일엔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제정 선포했다.

조영식 박사는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를 매년 개최하면서 자신의 평화 사상과 비전을 전 세계에 확산시켰다. 그리고 그는 세계평화를 구현할 지도자 중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특별한 대학원 설립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화복지대학원은 제3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인 1984년 9월 25일에 공식 설립됐다. 40여년이 지난 지금, 당시 설립자가 천명한 대학원의 설립 취지를 다시 되돌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바야흐로 오늘 세계 문명의 중심은 동양에서 유럽, 그리고 미대륙을 거쳐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종합 문명사회를 바라보면서 환태평양 연안 지역으로 전진해 오고 있다. 이제 인류는 과거 중세와 근세, 현대에서 경험한 부분적 문화 즉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을 지양하여 새로운 인류의 종합 문명사회를 창조하려고 한다. 이때 우리 지성인에게 부여된 책무는 참으로 중차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는 그러한 의미에서 동양의 정신문명과 서구의 물질문명이 조화되고, 동서 이념이 융화되고 하나의 세계 공동사회가 이룩되어야 할 내일의 종합 문명사회를 바라보면서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 당위적인 인류의 요청적 미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유위한 역군이 될 수 있는 국제적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평화복지대학원을 설립하게 되었음을 여기에 천명하는 바이다."

평화복지대학원 엠블럼을 보면 위와 같은 설립 취지가 반영됐다. 왼쪽 남자 나인상은 국제평화 기구인 유엔의 엠블럼을 받쳐 들고, 오른쪽 여자 나인상은 종합 문명사회 건설을 뜻하는 'Oughtopia'와 'GCS'가 새겨진 지구를 받쳐 들고 있다. 그리고 중앙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관이 금빛 햇살을 받쳐 들고 있다. 이 엠블럼은 현재 경희대학교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

오늘의 광릉캠퍼스에 있는 모든 건축물과 조형에는 설립자의 사상과 비전이 담겨 있다. 본관 건물은 1985년 7월 12일 착공해 10개월 만에 완성했다.

본관 전면에는 설립자가 창시한 '잘살기운동'과 '밝은사회운동'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우고, 그 밑에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를 부조로 새겼다. 설립자가 물질혁명을 의미하는 잘살기운동, 정신혁명을 의미하는 밝은사회운동 조형물에 왜 무궁화를 새겨 넣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무궁화는 목련화와 함께 경희학원 조형물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상징물이다.

본관 로비의 양 기둥에는 "새천년을 향하고 있는 우리는 모두를 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와 "우주 시대를 향하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세계를 만들 것인가"라는 화두가 새겨져 있다. 또한 대리석 로비 바닥에는 평화(Peace), 안보(Security), 복지(Welfare)가 교육(Education)을 통해 구현될 수 있음과, 이를 통해 건설될 오토피아의 3대 가치인 BAR이 새겨져 있다. BAR은 정신적으로 아름답고(B),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며(A),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R) 당위적 요청사회의 약자다. 그리고

벽면에는 당시 유엔사무총장 케야르의 개원 축하 메시지를 비롯한 평화 메시지가 새겨져 있다.

1987년 3월 3일에는 기속사인 삼정서헌(三正書軒)의 기공식이 있었다. 6개월 후인 8월 30일 완공했다. 삼정은 정지(正知), 정판(正判), 정행(正行)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며 삼정행을 수련했다.

같은 해 10월 31일에는 체육관이 완공됐다. 1990년 9월, 제9회 세계평화의 날에는 본관 앞 오른쪽 언덕 위에 평화의 탑이 제막됐다. 평화의 탑에는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같은 해 명상관이 완공됐다. 명상관 입구 오른쪽 벽에는 '자아 발견' '자아 완성' '자아 실현'이라는 모토가 새겨져 있다. 학생들은 이때부터 이른 아침에 이곳에 모여 단체 명상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9년 9월 3일 도서관이 완공돼 오늘날 광릉캠퍼스의 전모가 갖추어졌다.

평화복지대학원이 설립된 지 올해로 40년이다. 설립자는 이 대학원에 남다른 애정과 정성을 기울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교를 방문했고 학생과 만나 자신의 사상과 비전을 역설했다. 언젠가 전체 학생이 모인 자리에서 설립자는 "나는 단 한 명의 학생이 남더라도 이 교육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힌 적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많은 것이 바뀌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전통적으로 운영해 오던 프로그램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개원 40주년에 즈음해 평화복지대학원이 왜 설립되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전환의 시대에 평화복지대학원 원가(院歌)에 나오는 '밝아오는 새 시대의 등불'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기사 사진 모두 경희기록관 제공



평화복지대학원 본관



평화의 탑



광릉중학교